



**삼성전자서비스,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선정**  
삼성전자서비스가 업계 최고임을 다시 증명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7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발표한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서 서비스센터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는 12개 평가 항목 중 ▲고객 만족도 ▲서비스 혁신성 ▲기업 신뢰도 등 11개 영역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삼성전자



**KBI동국실업, '현대모비스 파트너스 데이' 대상**  
KBI동국실업은 현대모비스와 협력해 간 공유, 공감, 소통의 장을 통한 협력관계 향상을 위해 개최한 '2023년 현대모비스 파트너스 데이'에서 최우수 협력사로 선정되어 대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박효상 KBI그룹 회장(오른쪽)이 '2023년 현대모비스 파트너스 데이'에서 대상 수상 후 조성환 현대모비스 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I동국실업



**삼표그룹, 저소득가정 아동에 새 학기 물품 전달**  
삼표그룹이 '삼표와 함께하는 새 학기, 새 출발 지원사업' 일환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책가방과 학용품 등이 담긴 새 학기 물품을 전달했다. 새 학기 학용품은 서울 성동구 지역의 저소득가정 아동에 전달할 예정이다. 삼표그룹 유용재 사회공헌팀장(오른쪽)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차동범 나눔사업팀장에게 새학기 물품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표그룹



**하이트진로홀딩스, 요식업 종사자 자녀 학업 지원**  
하이트진로홀딩스가 요식업 종사자 자녀 대상의 장학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7일 밝혔다. 성적, 가정형편, 장학금 필요성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약 50명을 장학학생으로 선발했으며, 연간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하이트진로홀딩스

**에쓰오일 故 성공일 소방사 유족 지원**

에쓰오일은 전북 김제시 금산면의 단독주택 화재 진압 도중 순직한 김제소방서 고(故) 성공일 소방사(30세) 유족에게 위로금 3000만 원을 전달한다고 7일 밝혔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소방관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에쓰오일의 위로금이 유족들이 슬픔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이용자 입장 빠진 공정위 심의... 카카오 과징금 부담”**

**인터뷰 | 장강철 개인택시티블루협의회 회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카카오 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를 비가맹택시보다 우대(우선 배차 혜택)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국내 가맹택시협회 조직인 한국개인택시티블루협의회(한티협)가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다. 그 이유는 심의과정서 공정이 배제됐다는 것.

**장 회장, 심의 공정성 지적  
“소비자 편익 향상 평가 미흡  
‘몰아주기’ 주장 납득 불가”**

장강철 한국개인택시티블루협의회 회장은 지난 3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공정위가 카카오에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해당이 유효한 명확하지 않다. 공정위 전원 회의에 참석해 심사 과정을 모두 지켜봤다. 이용자들의 입장은 철저히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일, 8일 양일간 공정위 회의에 참관 자격으로 참석한 장 회장은 “심의과정에서 공정위와 신고인(비가맹택시) 측은 이용자 편익과 이해당사(가맹택시)의 입장은 배제한채 모순적인 발언만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가맹택시 시스템이 소비자 편익을 높인 부분을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정위는 심의현장에서 일반호출 배차 과정에서 가맹 택시 기사에게 우선 배차 혜택을 줬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인 카카오토티블루 기사의 콜카드 수락률이 비가맹기사보다 높은 점을 고려해 인공지능을 통해 배차를 몰아줬다는 것. 이는 곧 카카오토티블루가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에 장 회장은 “현재 가맹택시들은 목적지가 미표시 되고 강제 배차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공정위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라고 반발했다.

반면 비가맹택시들은 목적지가 표시되고 콜 또한 거부할 수 있어 골라잡기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카카오토티블루 측은 즉각 공정위의 주장에 반발하며 각 계층의 전문가(교수, 연구)들이 객관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제시했다. 그들의 공통된 결과는 ‘알고리즘을 조작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였다. 하지만 이마저도 공정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

장 회장은 “알고리즘을 조작하지 않았다는 연구보고서를 공정위 측으로 제출했지만 해당 내용은 완전히 무시됐다. 심의 현장에서는 이해당사자(가맹택시) 주장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가맹택시들이 형평성을



장강철 한티협회장(오른쪽 첫번째)이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한티협

위해 전 택시 ‘목적지 미표시’를 요구하는 점도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장회장은 “비가맹 일반택시 기사들은 목적지까지 거리를 보고 호출을 골라잡기 때문에 호출 수락률이 낮고 그로 인해 호출 배정도 적게 된다. 이런 이유로 배차 거부권이 없는 가맹택시 기사들과 수익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 과정에서 비가맹 택시들이 ‘미표시’를 해야 수락률이 올라간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택시의 생태계를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제발 등 짙는 꼴’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비가맹들은 돈되는 먼 거리를 골라서 운행하면 되는데 굳이 미표시 장소를 요구하겠나. 이상하지 않나. 뒤에 어떤 뜻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카카오토티블루나 한티협은 비가맹이 요구하는 미표시에 대해 오히려 긍정적으로 본다. 통과된다면 시스템을 전면 교체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가

맹들이 실질적으로 얻는게 있을까 싶다. 통과된다면 이 모든 화살은 신고인의 주최측인 서평회로 쏠리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맹택시만이 이 과정에서 소비자 편익 증대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을 공정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가맹택시가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목적지 미표시와 강제 배차 등 여러 불편을 감수하는 상황이다. 반면 목적지가 보이는 비가맹 택시는 콜을 고르고 거절하는 몇 분 동안 이용자들은 계속 거절당하거나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이번 결론이 이용자들의 편익을 최 우선으로 생각한채 내린 공정하게 내린 결정인가”라며 “소비자들의 편익은 철저히 무시된 채 정치권들의 목소리만 반영된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들 뿐”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행복언라이언스, 지역사회 결식우려아동 지원**

당진시 ‘행복두끼 프로젝트’ 1년간 양질의 밑반찬 제공

사회공헌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가 당진시 결식우려아동 지원을 위한 ‘행복두끼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행복두끼 프로젝트’는 기업, 지방정부, 일반 시민 그리고 지역사회의 민관 협력을 통해 아동의 결식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다.

이번 당진시 행복두끼 프로젝트에서는 총 40명의 당진시 거주 아동 대상으로 1년간 양질의 밑반찬을 지



(왼쪽부터)조태용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농어촌상생기금운영본부 본부장, 조민영 행복얼라이언스 사무국(행복나래쥬) 본부장, 오성환 당진시 시장, 박재덕 SK E&S Renewables 개발 Group 그룹장, 류성선 SK E&S ESG본부본부장 /행복얼라이언스

원할 예정이다.

당진시청은 결식우려아동을 발굴하고, SK E&S는 대상 아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기부했다.

/최빛나 기자

특히, SK E&S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통해 농어촌 결식우려아동 지원에 힘을 더했다.

**종근당홀딩스 국동완 등 3인 ‘종근당 예술지상’**

올해의 작가 증서 수여

종근당홀딩스가 6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종근당 예술지상 2023 올해의 작가 증서 수여식’을 갖고 국동완, 박미라, 한지형 등 3인을 올해의 작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종근당 예술지상은 미술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두 차

례의 비공개 심사를 통해 3명의 작가를 선정했다.

올해 선발된 작가들은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표현으로 자신만의 작업 세계를 진지하게 구축해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최종 작가로 선발됐다. 선정된 작가들에게는 1인당 연간 1000만원의 창작금을 3년간 지원하며, 지원 마지막 해에는 기획전 개최 기회를 제공한다. /이세경 기자 seilee@



종근당 예술지상 2023 올해의 작가 증서 수여식에서 이충만 한국메세나협회 사무처장, 한지형 작가, 박미라 작가, 국동완 작가, 김태영 종근당홀딩스 대표이사, 김노암 아트스페이스 휴 대표(왼쪽부터)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인사**

◆국토교통부 ◇국장급 승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장 정우진 ◇과장급 전보 △비서실장 박준형 △운영지원과장 이기봉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장 방현하 △수도권정책과장 박명주 △북한도시정책과장 박정수 △해외건설정책과장 최신행 △첨단물류과장 안진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 박대순

◆농촌진흥청 ◇과장급 승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 채소과장 문지혜

**부음**

▲박영모씨 별세, 박영훈(강원도의회 의장비서실장)씨 부친상 = 7일, 강원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9일 오전 8시 30분, 장지 춘천 안식원. 033-258-9401

▲임석남씨 별세, 이인재(전 MBC 영상미술국장)·이선재(불교방송 사장)·이현재(전 한국NCR 대표)씨 모친상, 정현주·황규용씨 시모상 = 6일, 동국대 일산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9일 오전 8시 30분. 031-961-9401

▲전창호씨 별세, 전한영(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씨 부친상 = 7일, 강릉의료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9일 오전 8시. 033-610-1444

▲김현선씨 별세, 장준용(부산 동래구청장)씨 장모상 = 7일, 부산 대동병원 장례식장 지하 2층 5호실, 발인 9일 오전 9시, 부산 영락공원·정관추모공원. 051-550-9991